中國語文學 第62輯(2013. 4) 83-106쪽

心學과 ≪西遊記≫의 주제 연구*

서 정 희**

<目 次>

Ⅰ. 서 론
Ⅱ. ≪西遊記≫ 탄생의 사상적 배경—心學
Ⅲ. 心學과 ≪西遊記≫의 주제
1. 개체 欲望의 긍정
2. 개체의 존재가치 긍정 및 주체성의 자각
3. 欲望의 극복과 天理의 실현—心性修煉
Ⅳ. 결 론

Ⅰ. 서 론

소설 史家들은 100회본 ≪西遊記≫의 탄생을 明 中期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1] ≪서유기≫가 탄생된 명 중기 이후의 사상적 특성은 程朱理學의 쇠퇴와 陽明心學의 유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宋 이후, 사회의 주도적 통치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던 정주이학은 명 중기 이후 변화하는 당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存天理, 滅人欲」이란 엄격한 윤리표준으로 사람들을 억압하였다. 그 결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心學이 탄생하게 되었다. 陸九淵의 「心卽理」 사상을 계승한 王陽明의 학설은 사상계를 風靡하는 顯學으로 부상하였고, 이 학설은 사회의 각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서유기≫는 중국문학사, 소설사에서 명대 中期 이후 소설로 분류되어 서술된다. 章培恒, 駱玉明主編, ≪中國文學史≫, 復旦大學出版社, 1996; 齊裕焜, ≪明代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1997 참조.

www.kci.go.kr

영역에 스며들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왕양명 심학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개체의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주이학이 인간에게 가한 족쇄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 개인의 욕망과 존재가치를 긍정한 심학의 흥성은 당시 문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통속문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많은 문학 작품들과 평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심학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유기≫와 ≪金瓶梅≫ 및 馮夢龍의 ≪三言≫을 손꼽을 수 있다.

≪서유기≫ 창작이 명 심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소설이 출간된 이후부터 제기되었으며 이후 ≪서유기≫와 심학의 관계를 언급한 평론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연구 방향이 ≪서유기≫의 유머, 풍자성 및 신화적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서유기≫와 심학의 관계는 그다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서유기≫의 희극성과 풍자적 특성을 강조한 胡適의 관점은 ≪서유기≫ 비평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게 된다. 魯迅 역시 호적의 주장을 수용하여 ≪서유기≫의 희극성과 풍자성을 강조하였지만 심학과 ≪서유기≫의 연관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 만약 억지로 이 책의 大旨를 구하려고 한다면, 謝肇淛(「五雜俎」15)의 "≪西遊記≫는 曼衍虛誕하나, 그 종횡변화에 있어서 猿을 마음의 神靈으로 하고, 猪를 의지의 慾求로 하고 있다. 그 처음의 방종은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 하여 억제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金箍棒을 가지고 呪文을 읽는데 돌아가서는 능히 猿心을 馴伏시키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반하지 않았으니 대개 흩어진 마음을 구하는데 비유하더라도 무익한 작품은 아닐 것이다."라고 한 몇 구절의 말이 이미 그것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假欲勉求大旨, 則謝肇淛<五雜俎>十五 "≪西遊記≫曼衍虛誕, 而其縱橫變化, 以猿爲心之神, 以猪爲意之馳, 其始之放縱, 上天下地, 莫能禁制, 而歸于緊箍一咒, 能使心猿馴伏, 至死靡他, 蓋亦求放心之喩—非浪作也." 數語, 已足盡之.)[2]

2) 魯迅著, 丁範鎭譯, ≪中國小說史略≫, 동아인쇄, 1987, 189쪽.

www.kci.go.kr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노신은 명 謝肇淛의 「求放心」설을 가져와 심학과 ≪서유기≫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심학의 관점에서 연구된 평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세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된다. 1980년대 개혁개방이후 개인의 욕망과 가치에 대한 욕구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욕망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불가피해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서유기≫와 심학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논문들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潘富恩의 <談陽明心學與西遊記的心路歷程>, 楊俊의 <西遊記與心學新論>, 田同旭의 <情與理的戰鬪—西遊記主題新論>, 王前程의 <西遊記的情欲觀及其文化價値>, 宋克夫의 <吳承恩與明代心學思潮及西遊記的著作權問題> 등을 들 수 있다.[3] 이외에도 심학의 관점에서 ≪서유기≫를 연구한 논문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명대의 ≪서유기≫ 평론에서 시작된 ≪서유기≫와 심학의 논의는 시기적인 부침을 겪으면서 일정 시기 논의의 장에서 사라진 적도 있었지만, ≪서유기≫가 심학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다는 주장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들은 ≪서유기≫가 왕양명 및 그 후학의 철학사상을 흡수하여 스토리, 인물을 창조하고, 주제의식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이후 개인 욕망이 팽창하는 중국 사회의 빠른 변화에 부응하여 ≪서유기≫ 연구 풍토 역시 변화를 겪는 지금 심학의 주요 사상이 문학적 장치를 통하여 ≪서유기≫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연구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의 토대 위에서 심학의 주요 사상이 ≪서유기≫의 주제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3) 潘富恩, <談陽明心學與西遊記的心路歷程>; 楊俊, <西遊記與心學新論>; 田同旭, <情與理的戰鬪—西遊記主題新論>, ≪西遊記文化學刊≫編委會, ≪西遊記文化學刊≫, 東方出版社, 1998. 宋克夫, <吳承恩與明代心學思潮及西遊記的著作權問題>, ≪湖北大學學報≫, 1996년 第1期. 王前程, <西遊記的情欲觀及其文化價値>, ≪社會科學硏究≫, 2004.4.

www.kci.go.kr

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유기≫ 탄생의 사상적 배경이 된 심학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Ⅱ. ≪西遊記≫ 탄생의 사상적 배경－心學

인간 삶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 욕망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산, 수용되는지 혹은 조절, 억압되는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인 욕망과 공동체의 선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과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탐구는 역사 이래 인류가 끊임없이 고민해 왔던 중요한 논제의 하나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儒家, 道家, 佛敎의 三大 사상도 개인 욕망과 사회 공동체간의 조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제의 하나로 삼았다. 그리하여 儒家, 道家, 佛敎 사상 역시 개인의 욕망과 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전개하였다. 유가가 욕망을 억제하고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한다면, 도가는 욕망에서 벗어나 천지자연과 합일된 절대 자유의 경지를 최고의 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불교에서는 금욕을 통하여 세계의 실상인 空을 깨달아 해탈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 문제인 욕망은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욕망을 확장시킬 것인지 혹은 억압시킬 것인지에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宋代에 이르자 인간의 욕망과 도의 관계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송의 이학자들은 욕망과 도의 관계를 人欲과 天理의 관계로 정립하고 인간의 욕망은 천리에 부합될 때에만 비로소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인욕과 천리의 관계를 「存天理, 滅人欲」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인간 욕망의 지나친 절제를 요구한 송명 이학은 명대 중후기 사회에 대두된 다양한 욕구와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고 文化專制主義적인 경향을 강하게 띄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 당시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상인 왕양명의 심학이 등

www.kci.go.kr

장하였다.[4]

개체의 욕망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봉건제도와 봉건도덕 윤리질서에 부합하는 부속품으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한 정주이학에 대한 반동에서 왕양명의 심학이 대두된 것이다. 왕양명과 그의 후학 王畿, 王艮, 李卓吾 등을 위시한 명 중엽 이후의 심학자들은 송명 이학의 독단적인 문화전제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 개체의 욕망을 인정하고, 개성을 해방시킴으로써 개인의 심령 자유에 대한 욕망을 촉발시켰다. 심학은 정주이학이 개인에게 가한 속박과 억압의 사슬을 부수고 인간의 욕망 긍정, 기존 통치 질서에 대한 저항 등을 통하여 인간 해방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왕양명은 陸九淵의 「心卽理」설을 새로이 발전시켰다. 왕양명은 ≪傳習錄≫에서 마음과 천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마음은 곧 이치이다. 천하에 또 마음 밖의 일이 있으며 마음 밖에 이치가 있는가?(心卽理也, 天下又有心外之事, 心外之理乎?)[5]

왕양명은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 안에 있기에 이를 내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면 이치를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이치의 근원을 「심」으로 귀결시켰다. 또 주장하기를

> 내 마음의 양지가 곧 천리이다.(吾心之良知, 卽所謂天理也.)[6]

「吾心」은 일체의 근거이며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며 천리를 가리킨다. 「理」란 「心」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천지간의 모든 이치는 「心」을 떠나서

4) 왕양명의 심학은 실제로 儒, 佛, 道 三敎를 융합한 것이며 불학의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다. 왕양명의 심학은 불교(특히 南宗 禪)와 도가 사상의 요소와 결합하여 이론 체계를 구축하였다. 程文超 等 著. ≪欲望的重新敍述≫,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99쪽 참조.

5) 王陽明, ≪傳習錄≫ 卷上, 正中書局, 1980, 2쪽.

6) ≪傳習錄≫ 卷中, <答顧東橋書>, 36쪽.

www.kci.go.kr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良知」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의식이며 천리이므로 오로지 마음에다 구하면 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주관인식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이치를 인정하지 않고 본래의 마음속에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사려작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알게 되며, 배움에 의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양지라고 한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부여한 성이고, 내 마음의 본체이며, 저절로 영특하게 밝고 빛나서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다.(是非之心, 不待慮而知, 不待學而能, 是故謂之良知. 是乃天命之性, 吾心之本體, 自然靈昭明覺者也.)[7]

사려 작용과 학습에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도덕의식이 양지이다. 그는 마음의 본체(心之本體)가 곧 하늘의 이치(天理)이고, "하늘의 이치의 저절로 그러한 밝은 깨달음(天理之自然明覺)"이 곧 사람이 지닌 본래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며, 이것이 곧 양지라고 주장했다.[8]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덕의식을 무한히 확대해서 발휘하는 것이 「致良知」이다. 자기 안에 내재하는 靈明함을 자각하여 이를 부단히 확장시키는 치양지의 공부를 통하여 사람은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양지를 지니고 있는데 어째서 성인군자가 되기 어려운가? 이는 모든 인간이 양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사로운 욕심에 가려지기 때문에 성인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致良知」의 공부를 통하여 욕심으로 어둡게 가려진 것을 제거하고 천리의 밝음을 회복해야 비로소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부여된 마음이 천리임을 주장함으로써 심학은 개체의 가치를 긍정하고 개체의 욕망을 긍정할 수 있는

7) 王陽明, <文錄卷一大學問>, ≪王陽明全書≫, 正中書局, 1979, 122쪽.
8) 張岱年著, 김백희 옮김, ≪中國哲學大綱≫ 下, 까치, 1998, 710쪽.

www.kci.go.kr

길을 열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주이학이 개체에게 가한 속박과 억압의 사슬을 제거하고 개체의 욕망과 존엄성을 인정한 것이다. 심학은 천리를 긍정하면서 욕망의 가치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욕망의 존재를 긍정하고 이를 정면에 내세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 아래 탄생한 ≪서유기≫는 당시 사상계를 풍미한 개체 욕망, 개체의 주체의식 및 욕망과 천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학의 중심 사유를 작품 속에 잘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사고, 심리, 행위 등을 통하여 인간 개체의 욕망을 긍정하고, 인간 개체의 주체성을 고양하고 있으며 나아가 욕망과 천리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서유기≫ 속에 담겨 있는 심학 사상의 요소를 고찰함으로써 ≪서유기≫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心學과 ≪西遊記≫의 주제

명 萬曆 20년(1592년) 金陵 世德堂에서 출간된 ≪新刻出像官版大字西遊記≫가 현존하는 100본 ≪서유기≫의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9] 이 책의 권두에 陳元之의 <西遊記序>가 있다. 보통 ≪서유기≫와 심학의 관계를 논하는 학자들은 이 <序>를 ≪서유기≫와 심학의 관련을 입증하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 인용하고 있다. <序>에 의하면

> 그 서에서 손은, 손으로 마음의 신을 의미한다. 말은 말로 의념이 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팔계는 지켜야 하는 계율 8가지를 의미하는데 이는 肝氣의 木이다. 사는 流沙인데 腎氣의 水이다. 삼장은 神(정신), 聲(소리), 氣(기)를 담은 삼장으로 외피의 주인을 의미한다. 마는 마로 口耳鼻舌神意와 恐怖顚倒의 환상에서 비롯된 장애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는 마음에서 생

9) 孫楷第,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 鳳凰出版社, 1985, 73쪽.

www.kci.go.kr

겨나고 또 마음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다. 마음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마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마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이치로 돌아갈 수 있다. 이치로 돌아감으로써 태초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마음에 거두어들일 것이 없다는 것이다.(其敍以猱, 猱也; 以爲心之神. 馬; 馬也, 以爲意之馳. 八戒, 其所戒八也; 以爲肝氣之木. 沙, 流沙; 以爲腎氣之水. 三藏, 藏神、藏聲、藏氣之三藏; 以爲浮郭之主. 魔, 魔; 以爲口耳鼻舌身意恐怖顚倒幻想之障. 故魔以心生, 亦以心攝. 是故攝心以攝魔, 攝魔以還理. 還理以歸之太初, 卽心無可攝.)[10]

위의 인용문은 ≪서유기≫가 심성수련의 철학적 우언을 담은 소설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肝氣之木」, 「腎氣之水」 등 인체과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내용은 인간 존재란 「神(정신)」, 「聲(소리)」, 「氣」를 담고 있는 주인으로 손오공의 「猱」은 마음의 神을 의미하고, 「馬」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의념을 의미한다. 마귀란 인간의 口耳鼻舌身意에서 비롯된 공포와 顚倒로 만들어진 환상이 가져온 장애로서 마귀가 생겨나는 근원지는 바로 마음이며 이 때문에 마음으로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마음 수양을 통해서 마귀를 제어할 수 있으며 마귀를 제어함으로써 태초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에서 마귀가 생기고 또 이 마귀를 제어하여 이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근원이 마음이라는 주장은 「心卽理」 사상의 문학적 표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후 評點家들에 의해 수용되어 ≪서유기≫ 해석의 한 분파를 형성하였으며 ≪서유기≫는 심성수련의 주제를 설파한 소설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주장 아래서 ≪서유기≫가 어떻게 심학사상의 주요 내용을 원용하여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유기≫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 심학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유기≫는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 둘째, 개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주체성의 자각을 주장함으로써

10) [明] 陳元之, <西遊記序>, 劉蔭柏, ≪西遊記研究資料≫, 上海古籍出版社, 1990, 556쪽.

www.kci.go.kr

평등사상,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 인간 해방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셋째, ≪서유기≫는 심성수련의 주제를 통하여 欲望과 天理 사이의 역학 관계를 조명하고 조화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의의를 설파하고 있다.

1. 개체 欲望의 긍정

≪서유기≫는 취경단 일행의 고행을 통하여 욕망을 다스리고 극복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9×9 81난의 과정이 바로 서유를 통한 수행의 과정으로 자기 안에 내재하는 욕망을 극복하고 부처에 이르는 심성수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욕망은 생명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욕망도 없다. 욕망은 또한 인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며 삶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력이다. 욕망이 있어야만 개인의 삶에 창조력, 생명력이 넘치며 사회에는 생기와 활기가 넘치게 된다.

정주이학이 인간 생명력의 원천인 욕망을 제거해야 하는 사악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심학은 이를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생명력으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심학 사상을 수용하여 창작된 ≪서유기≫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욕망을 가진 인물들을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손오공과 저팔계이다. 손오공은 제1회~제7회에서 인간이 가진 다양한 욕망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손오공은 자연의 존재이다. 천지의 정수와 일월의 정화를 받아 돌 속에서 태어난 돌 원숭이이다. 이렇게 태어난 돌 원숭이는 산중에 살면서 나무 열매를 따 먹고, 개울물을 마시며 추위가 가고 해가 바뀌는 줄도 모르는 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산다. 그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는 인물이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지배도 받지 않으면서 자유자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자연 속에서 태어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억압과 관할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손오공에

www.kci.go.kr

대한 묘사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자연스런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던 손오공은 존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죽음을 인식하게 된다. 비록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결핍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실체를 목도한 손오공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도의 길을 떠난다. 도를 닦아 72般 地煞變化法과 觔斗雲을 부리는 법술을 배우고 돌아 온 손오공은 지상에서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것이 천상세계의 근심거리가 된다. 손오공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구속하기 위하여 천상세계는 손오공을 천상세계의 일원으로 영입한다. 손오공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를 구속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천상세계로 불러들인 것이다. 천상세계의 진의를 알아차린 손오공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또 그들의 작태에 크게 실망하여 천계에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다. 그는 기존의 통치 질서를 대표하는 천상세계에 당당하게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영웅으로 재탄생한다.

석가여래부처에 의해 五行山에 갇히기 전까지 손오공은 자연인으로서의 생존 욕망,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하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손오공의 형상이 성공적으로 창조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손오공 안의 다양한 욕망의 세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오공이 소설 전반부에서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저항의 아이콘으로 묘사되었다면, 저팔계는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상징하는 인물로 창조되었다.

≪서유기≫ 안에서 욕망의 화신으로 묘사된 저팔계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저팔계는 세속인으로서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저팔계는 원래 천상세계의 천하를 통솔하는 天蓬元帥인데 항아를 희롱한 죄로 지상세계로 추방된다. 그러나 지상세계로 추방된 이후에도 그는 卵二姐를 아내로 삼고, 다시 高老莊의 사위가 되어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손오공이 중시하는 것이 명예라면 저팔계가 추구하는 것은

www.kci.go.kr

명예도 권력도 아니다. 그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食色을 탐하는 인물이다. 그는 음식과 잠을 탐하며 색을 좋아한다. 그는 항상 먹는 타령을 하면서 먹을 것을 앞에 두면 참지 못하고 게눈 감추듯이 먹어치운다. 그는 "한 끼에 쌀밥을 서너 말씩 먹어 치우고, 아침 간식으로 백 개가 넘는 구운 떡을 먹어야만 직성이 풀린다.(一頓要喫三五斗米飯; 早間點心, 也得百十個燒餅纔彀)"고 할 정도로 먹는 것에 탐닉한다.[11] 저팔계에게 먹는 것은 생의 목표이다. 먹는 것에 집착하는 그의 형상은 소설 속에 매우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저팔계는 식뿐 아니라 색에도 집착한다. 그는 여자만 보면 서천행을 그만 두고 보따리에 든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각기 제 갈 길을 가자고 보챈다. 그렇기 때문에 盤絲洞에서 7명의 아름다운 요녀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자 저팔계는 바로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7명의 여자를 희롱한다. 그가 메기로 변하여 "그렇게 요괴들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쑤시고 돌아다녔다.(只在那腿襠裏亂鑽.)"는 장면은 매우 노골적으로 저팔계의 성적 유희를 표현하고 있다.[12] 여인국에서는 여왕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이 질질 흐르고, 심장은 마구 방망이질 쳤다. 순식간에 뼈가 흐물흐물해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것이 마치 눈 사자가 불 앞으로 달려든 것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렸다.(忍不住口嘴流涎, 心頭撞鹿, 一時間骨軟筋麻, 好便似雪獅子向火, 不覺的都化去也.)"[13] 저팔계는 여자만 보면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몸이 흐물흐물해지는 색을 탐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처럼 식과 색을 탐하는 저팔계를 결코 혐오스러운 인물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재미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로부터 식욕과 색욕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사악한 것으로 폄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저팔계는 때때로 손오공에게 핀잔을 듣거나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의 욕망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독자들의 무한한 사랑

11) ≪서유기≫, 華正書局, 1978, 제18회, 207쪽.
12) 같은 책, 제72회, 826쪽.
13) 같은 책. 제54회, 626쪽.

www.kci.go.kr

을 받는 인물로 창조되었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서유기≫는 욕망을 무조건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기≫는 전체적 큰 틀에서는 욕망에 대한 극복과 천리와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묘사에서는 욕망을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서유기≫ 탄생에 사상적 토대가 된 심학의 영향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개체의 존재가치 긍정 및 주체성의 자각

심학사상이 당시 사회에 미친 중요한 영향중 하나는 개인의 존재 가치를 긍정한 것이다. 이학이 개인을 천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면 심학은 마음의 주체성과 그 작용을 인정함으로써 존재 자체의 가치를 긍정하였다. 존재 가치의 긍정은 개인의 주체의식을 고취하며 자기의 의지와 희망에 따라 자아실현과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개체의 존재 가치에 대한 긍정이 ≪서유기≫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유기≫ 인물들은 정의, 선, 평화, 사랑 등 정면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면인물과 불의, 악, 혼돈, 증오 등을 대변하는 반면인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정면인물이든 반면인물이든 모두 마음의 작용에 따라 언제나 변화 가능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요괴와 신선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향방에 따라 부정적 인물인 요괴로 추락할 수도 정면 인물인 신선의 반열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서유 인물들은 사회적 틀과 신분 속에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마음 상태와 실천(공부) 여하에 따라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도 도를 닦으면 천상세계의 신이 되며, 요괴들도 수련과정을 거쳐 正道를 이루면 천상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다.

www.kci.go.kr

신분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누구라도 마음의 수행을 통하여 존재의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더 낮은 차원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긍정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유기≫ 제17회 <孫行者大鬧黑風山, 觀世音收伏熊羆怪>에서 관음보살은 熊羆怪를 잡기 위하여 잠시 광대무변한 법력을 사용하여 熊羆怪의 친구인 凌虛仙子로 변신하는데 이때 손오공은 변신한 관세음보살을 보고 다음과 같이 감탄한다.

>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요괴가 보살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살이 요괴가 된 겁니까?"이 때, 관음보살이 "오공아, 보살이든, 요괴이든 결국 일념에서 나온 것으로, 그 근본을 따진다면 모두가 다 무에 속하는 것이다."("妙啊! 妙啊! 還是妖精菩薩, 還是菩薩妖精?" 菩薩笑道: "悟空, 菩薩, 妖精, 總是一念, 若論本來, 皆屬無有.")14)

불교의 신인 관음보살이 요괴로 변하는 기제를 통하여 요괴와 보살은 마음의 향방에 따라 드러나는 현상계의 변화일 뿐, 본질적인 차이와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것의 진면목은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라는 불교의 교의를 통하여 모든 것이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즉 개개인은 모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마음을 가지며 마음을 가진 주체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선의 방향이든 혹은 악의 방향이든 선택하여 실천해 나가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서유기≫에 출현하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서유기≫ 안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 손오공이다. 손오공은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개척해 나간다. 손오공의 이러한 태도와 의식은 작품의 전반부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손오공이 다른 원숭이들과는 다르게 폭포 속으로 뛰어 들어가 水廉洞을 발견하고 美猴王

14) 같은 책, 제17회, 201쪽.

www.kci.go.kr

에 오른 일,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스승을 찾아 나선 일, 스승에게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72般 地煞變化法과 觔斗雲을 부리는 법을 배워 온 일, 용궁에 가서 여의봉을 빼앗아 온 일, 지하 冥府에 가서 生死簿의 이름을 지우고 온 일 심지어는 천상세계에 저항한 일 등등 모두가 손오공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주체적으로 자아의식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화과산에서 천지 일월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자연인 손오공은 자아를 의식하면서 자연의 몽롱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과 타자, 자신과 세계를 구분하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손오공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긍정하고 주체성을 자각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확장시키는 과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예를 들어보겠다.

> 하늘과 땅 사이에 저절로 태어나고 자라나 영험한 혼선이요, 화과산 산중의 원숭이라네. 수렴동에서 가업을 이루어, 친구 사귀고 스승을 찾아 태현의 오묘한 도리를 깨우쳤다네. 불로장생의 술법을 얼마쯤은 익혔고, 광대무변한 변화술도 배웠다네. 그런데 범속한 세상은 땅이 비좁아 싫으니, 천궁 요지에 올라가 살기로 뜻을 세웠네. 영소보전은 옥황상제 혼자서 길이 소유할 것이 아닌즉, 역대 인간의 제왕들처럼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는 법. 힘센 자가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거늘, 내게 양보함이 옳으리로다. 그래서 이 영웅은 자리를 탐하여 싸우는 중이라네.(天地生成靈混仙, 花果山中一老猿. 水廉洞裏爲家業, 拜友尋師悟太玄. 煉就長生多少法, 學來變化廣無邊. 因在凡間嫌地窄, 立心端要住瑤天. 靈霄寶殿非他久, 歷代人王有分傳. 强者爲尊該讓我, 英雄只此敢爭先.)[15]

손오공의 천상세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존재감과 자존감의 표현이다. 그는 옥황상제의 자리와 지위는 한 사람이 전유물이 아니므로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 같은 책, 제7회, 72-73쪽.

www.kci.go.kr

"옥황상제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수행했기로서니,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란 법이 어디 있소? 속담에도 '황제 노릇은 돌아가며 하는 법, 명년에는 내 차례'라고 하지 않소? 그더러 딴 데로 옮겨가고 천궁을 내게 넘긴다면 그만 두겠지만, 만약 내게 넘기지 않는다면, 내 기필코 이 천궁을 송두리째 뒤집어엎어 영영 태평할 날이 없도록 만들고야 말겠소! (他雖年幼修長, 也不應久占在此. 常言道: '皇帝輪流做, 明年到我家.' 只教他搬出去, 將天宮讓與我, 便罷了; 若還不讓, 定要攪攘; 永不淸平.)"[16]

손오공은 천궁을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대담하게 요구한다. 자기 존재에 관한 자존감, 자부심은 옥황상제나 석가여래불 앞에서도 전혀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드러난다. 우주에서 최고의 지위와 신분을 누려온 천상세계의 통치자인 옥황상제와 손오공은 동등한 존재 가치를 가진 인물이며 결코 신분제, 등급제에 따라 상하 관계로 구분된 존재가 아니다. 지위와 신분은 능력과 자질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결코 기득권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외치면서 기존의 통치 질서에 반항의 기치를 높이 든다.

개인 존재 가치에 대한 긍정은 정주이학이 강조하는 윤리, 도덕, 등급제를 부인하고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면서 용감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보살과 요정이 모두 하나」라는 관음보살의 말은 모든 존재가 동량의 가치를 지닌다는 관점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천상세계의 최고의 통치자와 요괴를 동량의 가치로 인식한다는 것은 정주이학의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관점인 것이다.

존재의 가치 긍정과 이로부터 확장되어 나오는 주체성의 자각은 기존질서에 대한 항거와 자유의 추구, 개성 해방의 사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이 가치들은 ≪서유기≫의 인물들 중 손오공의 형상을 통하여 가장 생동감 있게 표현된다. ≪서유기≫의 손오공이 자유, 해방, 저항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불리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사상의 영향 아래 창조되었기 때문인

16) 같은 책, 제7회, 73쪽.

www.kci.go.kr

것으로 보인다.

3. 欲望의 극복과 天理의 실현—心性修煉

≪서유기≫에는 1. 개체의 욕망 긍정 2. 개체의 존재 가치 긍정 및 주체성 자각을 고취한 주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유기≫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대 주제는 개인 욕망의 극복과 천리 실현의 심성수련으로 볼 수 있다.[17] 소설 전반부에 나타난 손오공의 욕망 세계와 기존질서에 대한 격렬한 저항을 통해 고취하고 있는 개인 가치의 긍정 및 주체성의 자각은 국부적, 지엽적인 소주제일 뿐이다. 13회 이후부터 소설은 당삼장 일행이 겪는 고행을 통해서 욕망 극복과 천리 실현의 절대적 필요성과 정당성을 천명하고 있다. 즉 천리로 대변되는 국가와 우주의 큰 틀 속에 개인의 욕망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주의 안녕과 행복 추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당삼장 일행의 서행은 개인적으로는 심성수련을 통한 자아완성의 과정이며 대외적으로는 우주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사악한 세력—요괴를 무찌르는 것을 의미한다. 손오공이 요괴들을 물리치고 서행을 계속하는 것은 욕망을 극복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욕망의 화신인 요괴들을 정복하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현상계의 요괴를 무찔러 사회악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심층적 의미에서는 자기 안에 내재하는 뜨겁게 타오르는 욕망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요괴를 무찌르고 불경을 구해와 세상을 구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유기≫는 마음안의 욕망을 억제하고 천리를 실현한다는 심성수련에 관한 철학적 주제를 문학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왕양명은 「心卽理」를 주장하면서 심을 천리의 위

17) 西遊 부분인 제13회~100회 사이에 욕망을 극복하고 천리를 실현하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www.kci.go.kr

치로 끌어 올리면서 개인의 욕망과 존재 가치를 긍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천리를 부인하지 않았다. 즉 개인의 욕망과 존재 가치를 긍정하면서 봉건제도와 봉건도덕윤리 질서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천리 역시 보존해야 한다는 이중적 가치관을 제시하였다.[18] 이와 같은 이중적 가치관 아래 ≪서유기≫는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체성 자각을 고취하면서 동시에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욕망의 극복과 천리 실현의 대 주제를 설정하였다.

소설 전반부에서 욕망과 주체성 자각을 실현하는 인물로 묘사된 손오공은 취경단에 합류한 뒤부터 기존의 통치 질서에 투항하여 불경을 가지러 가는 佛門 弟子로 변모하게 된다. 개인의 욕망과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공동체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며 전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로 변모한 것이다. 공동체의 질서와 선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은 정주이학의 기본 사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왕양명도 정주이학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단지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 공부이다. 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부단히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하며 동한 상태에서도 부단히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只要去人欲存天理, 方是功夫. 靜時念念去人欲存天理, 動時念念去人欲存天理.)[19]

왕양명은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 정진해야 하는 공부임을 설파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최고의 경지인 성

18) 이 같은 심학의 관점이 ≪서유기≫ 안에 수용되면서 ≪서유기≫ 주제 모순설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손오공이 당삼자의 제자가 된 이후 완연히 달라진 점을 들어 손오공 형상 창조에 전·후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당삼장의 제자가 되기 전 손오공은 천상세계에 저항하는 영웅적 인물로 그려진데 반하여 이후에는 기존 세력에 순응하는 인물로 변모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劉蔭柏著, <孫悟空論考>, ≪西遊記發微≫, 文津出版社, 民國84年, 68-74쪽 참조.

19) ≪傳習錄≫ 卷上, <右門人徐愛錄>, 11-12쪽.

www.kci.go.kr

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리를 보존하는 수양 공부의 요체는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인이 되려면 반드시 마음을 닦는 공부의 과정이 전제되는데 이것이「致良知」과정이다. ≪서유기≫에는 이와 같은 심성 수련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된다.[20] 취경단 일행이 81난을 겪으며 서천으로 향하는 노정은 개인의 小我적 욕망을 억제하고 大我적 천리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불경을 동토로 가져와 국가의 안녕을 이루고, 우주 속의 사악한 세력들을 제거하여 우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대업은 전체 사회와 우주에 복덕을 가져오는 범사회적, 범우주적인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욕망을 억제하고 천리를 실현하는 심성수련의 과정이 ≪서유기≫ 안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학이 모든 이치의 근원을 심으로 귀결시켜 심의 위치를 최고의 위치에 놓은 것처럼 ≪서유기≫에서도 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유기≫의 주인공인 손오공을 마음을 상징하는 인물로 설정하고 그를「心猿」,「心主」,「心」등으로 지칭한다. 손오공이 심을 대표한다는 사실은 제7회 시에 "원숭이의 도의 본체에 인간의 심령을 곁들였으니 심성은 원숭이나 사려는 깊다. 원숭이는 도의 본체로 사람의 마음을 가졌으니, 심이 바로 원숭이로 그 의미가 심장하구나(猿猴道體配人心, 心卽猿猴意思深)"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21] 여기에서 원숭이는 도를 실천하는 주체로 사람의 마음을 가졌으며 心이 猿 즉 손오공임을 밝히고 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기 좋아하는 동물인 원숭이 형상을 가져와 10만 8천리를 순간에 오고 가는 마음의 多變性을 상징하고 있다. 이 밖에도 回目을 통하여 심성수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유기≫ 회목 중 총 31개에 달하는 회목 가운데 심자가 보인다. 회목은 보통 작품의 주제 혹은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회목에 제시된 의미를 통하여 주제

20) 서정희, <西遊記에 나타난 人欲과 天理의 대립구조>, ≪중어중문학≫ 51집, 2012, 89-112쪽 참조.

21) ≪서유기≫, 앞의 책, 제7회, 70쪽.

www.kci.go.kr

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유기≫의 제1회 「심령의 근본이 잉태되니 원류가 드러나고, 심성을 닦으니 대도를 깨우친다(靈根育孕源流出, 心性修持大道生)」 회목은 처음부터 소설의 주제가 심성수련임을 밝히고 있다. 이어 제7회 「五行山下定心猿」, 제14회 「心猿歸正」, 제62회 「滌垢洗心惟掃塔」, 제76회 「心神居舍魔歸性」 등등 회목에서도 심성수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 게송, 그리고 손오공과 삼장의 대화를 통해 심성수련의 요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당삼장의 "마음에 잡념이 생기면 온갖 마성이 생겨나고; 마음에 잡념이 사라지면 온갖 마성이 멸해진다.(心生, 種種魔生; 心滅, 種種魔滅)"라는 말로부터 모든 고난의 실체가 마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설파하면서 서유의 핵심 주제가 심성수련이라는 것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22] 그렇다면 심성수련의 요체는 무엇인가? 왕양명이 만년에 언급한 「四句教」를 통해 ≪서유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심성수련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이며,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意의 움직임이며,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이며,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격물이다.(無善無惡是心之體, 有善有惡是意之動, 知善知惡是良知, 爲善去惡是格物.)[23]

「心之體」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마음의 본체로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상태이다. 사람의 의념이 활동을 할 때에야 비로소 선과 악의 구분이 있게 된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양지이며 선악에 대한 靈明한 판단 아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공부를 「격물」이라고 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심지체」에 의념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선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욕에 가려져 심의 본체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치양지의 도덕 실천 과정을 통하여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해야 한

22) 같은 책, 제13회, 143쪽.
23) ≪傳習錄≫ 卷下, 98쪽.

www.kci.go.kr

다고 보았다. 즉 실천 공부를 통하여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성인군자가 되는 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왕양명의 견해는 ≪서유기≫의 인물들을 통하여 구현된다.

마음을 상징하는 인물인 손오공은 無善無惡의 자연 속에서 태어난 자연인이다. 그는 태어난 뒤, 자연과 합일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의념이 발동하면서 욕망이 생겨나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분투한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도를 구한 일, 용궁에서 여의봉을 탈취해 온 일, 명부에 가서 생사부에 실린 이름을 삭제한 일, 천궁을 소란하게 한 일들이 모두 마음 속 의념의 작용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다. 그러나 손오공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靈明自覺의 양지를 부여받은 존재이기에 서천으로 갈 수 있는 취경단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24] 손오공은 마음껏 치달리는 의념의 작용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긴고테를 머리에 두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의념의 발동을 제어하면서 서행 길을 가게 된다.[25]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사로운 욕망을 바른 마음, 청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격물이다. 즉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실현하는 것이 격물인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서유기≫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욕망의 극복과 천리 보존의 심성수련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서유 인물들이 자신 안에 내재하는 욕망을 극복하고 목적지인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일, 도중 해악의 근원인 요괴들을 정복한 일, 불경을 동토로 가져와 전한 일, 그리고 취경단 일원 모두가 부처의 반열에 오른 일 등 당삼장 일행이 거쳐 간 과정은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욕망을 긍정하고 주체의 자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욕망이 전체 질서 속으로 수렴되기를 희망하는 큰 틀 위에서 작품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코 천리를

24) 손오공 뿐 아니라 모든 존재는 그 안에 靈明自覺의 良知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25) 긴고테를 작동하게 하는 주문인 「定心眞言」은 순간순간 움직이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제어하는 작용을 지닌 眞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www.kci.go.kr

부정하지 않았던 심학사상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심학의 주요 관점이 ≪서유기≫의 주제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명 중기 이후 왕양명 심학의 등장은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개체의 존재 가치를 고양하는 인간 해방 사조를 고취시켰다. 심학은 정주이학이 개인의 욕망을 극도로 억압하여 발생한 인간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인간 개성의 해방과 심령의 자유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문화배경 아래 탄생한 ≪서유기≫ 안에 심학의 주요 사상이 녹아 있다는 주장은 ≪서유기≫ 출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제기되었다. 명, 청 시기를 거치면서 ≪서유기≫ 평론의 주요 쟁점은 심성 수련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6] 이후 1980년 개혁개방으로 인한 인간 욕망과 존재 가치에 대한 재조명은 심학과 관련된 ≪서유기≫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본고는 ≪서유기≫가 심학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다는 기존의 주장 아래 ≪서유기≫가 어떻게 심학 사상을 수용하여 주제를 구성하였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심학 사상을 수용하여 창작된 ≪서유기≫에는 개체 욕망을 긍정하는 사상이 선명하게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유기≫는 손오공의 탄생, 성장, 구도 및 천상세계를 소란하게 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욕망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자연인으로서 자유자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 長生不死의 욕망,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망 등을 묘사함으로써 욕망의 생성, 확장과 그 결과 야기되는 문제를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손오공이 생기와

26) 劉蔭柏著, ≪西遊記研究資料≫, 第三編 <版本和序跋評點> 부분 참조. 上海古籍出版社, 1990.

www.kci.go.kr

활력이 넘치는 욕망의 아이콘으로 창조된 사실로부터 작자의 욕망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과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작자는 욕망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사악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세속인의 욕망을 대표하는 저팔계에 대해서도 결코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웃음을 선사하는 희극적인 인물로 창조함으로써 욕망을 긍정하고 있다. 이처럼 ≪서유기≫는 심학의 인간 욕망 긍정사상을 작품 속에 수용하여 인물 형상을 성공적으로 창조하고 있다. 둘째, ≪서유기≫에는 개체의 존재를 긍정하고 주체성의 자각을 고취하는 사상이 담겨 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저마다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심지어는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악한 존재인 요괴들조차도 존재의 가치를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정주이학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제거해야만 하는 악이 아니라 심성수련을 통해 변화 가능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손오공은 개체 존재의 가치를 신장하고 주체성의 자각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굴종하지 않으면서 자유와 존엄을 추구하는 인물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는 봉건사회가 개인에게 가한 속박을 끊고 개체의 자유를 획득하고 자아가치를 긍정하는 당시의 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비록 ≪서유기≫가 개체의 욕망을 긍정하고 개체의 가치 긍정 및 주체성의 자각을 고취하고 있지만 전체 내용은 당삼장 일행이 자신 안의 욕망을 극복하고 부처가 되는 심성수련의 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행 길에서 요괴를 물리치고 취경단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은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경단이 목적지인 서천에 도착하여 불경을 동토에 전하고 부처가 되는 것은 우주의 질서와 안녕을 가져오는 천리의 실현을 의미한다. 즉 욕망의 극복과 천리의 실현이라는 수행 과정의 묘사가 ≪서유기≫를 관통하는 주제인 것이다. 심학에서는 심의 본체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의념이 발동하면서 선과 악의 구분이 생겨나며 이로 인해 인간은 선을 향하여 갈 수도 있지만 악의 방향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악을 극복하기 위

www.kci.go.kr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양지를 지극히 발휘하여 선을 실천하고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학의 실천 철학은 ≪서유기≫의 스토리, 인물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으며 나아가 주제의식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유기≫는 명 중기의 顯學 사상인 심학을 원용해 들여옴으로써 심오하고 풍부한 주제를 가진 불후의 걸작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參考文獻>

≪西遊記≫, 華正書局, 1978.
劉蔭柏, ≪西遊記硏究資料≫, 上海古籍出版社, 1990.
西遊記文化學刊編委會, ≪西遊記文化學刊≫ 1, 동방출판사, 1998.
程文超等, ≪欲望的重新敍述≫,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李明軍, ≪禁忌與放縱≫, 齊魯書社, 2005.
竺洪波, ≪四百年西遊記學術史≫, 復旦大學出版社, 2006.
孫楷第,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 鳳凰出版社, 1974.
王陽明, ≪王陽明全書≫, 正中書局, 1979.
王陽明, ≪傳習錄≫, 正中書局, 1980.
勞思光, ≪中國哲學史≫ 第三卷 上冊, 三民書局, 1981.
鄭明娳, ≪西遊記探源≫ 上·下, 文開出版社, 1982.
余國藩著, 李奭學譯 ≪余國藩西遊記論集≫, 聯經出版社, 1989.
劉勇强, ≪西遊記論要≫, 文津出版社, 1990.
劉蔭柏, ≪西遊記發微≫, 文津出版社, 1995.
盧迅, 丁範鎭譯, ≪中國小說史略≫, 동아인쇄, 1987.
候外廬外, 박완식옮김, ≪송명이학사≫, 이론과 실천, 1994.
張岱年, 김백희옮김, ≪中國哲學大綱≫(하), 까치, 1998.
서종호, ≪유학의 욕망론과 인간해석≫, 한국학술정보, 2008.

www.kci.go.kr

宋克夫, <吳承恩與明代心學思潮及西遊記的著作權問題>, ≪湖北大學學報≫, 1996년 第1期.
王前程, <西遊記的情欲觀及其文化價值>, ≪社會科學研究≫, 2004.4.
薛梅, <心學視野下的西遊記研究>, ≪明淸小說研究≫ 92期, 2009.2.
서정희, <西遊記에 나타난 人欲과 天理의 대립구조>, ≪중어중문학≫ 51집, 2012.

<中文提要>

本論文以≪西遊記≫的創作受到心學的影響爲前提, 具體分析心學在≪西遊記≫的主題結構上起到了甚麼樣的作用。筆者分析的結論如下：

第一, ≪西遊記≫充滿了肯定個體欲望的心學思想。書中通過對各西遊人物的欲望進行生動活潑地勾畫, 成功地創造了活生生的人物形象。≪西遊記≫中的欲望不是祛除的對象而是生命的源泉和動力。第二, ≪西遊記≫內涵了心學中肯定個體存在價值和高揚主體意識的進步思想。≪西遊記≫的主要人物孫悟空一開始就被設定爲能夠發揚存在價值和主體性的存在。他都能依照自身的意志和選擇去創造價值、弘揚主體意識, 以展示恢復人格尊嚴的主題。第三, ≪西遊記≫雖然內涵了心學所強調的肯定欲望和存在價值的內容, 但西天取經後的大主題卻又強調克服人欲和實現天理的心性修煉價值。即西天取經實際上是通過克服個體的私欲來重整宇宙秩序以獲得安寧的過程。≪西遊記≫強調祛除人欲以恢復天理的心性修煉主題是心學「去人欲致良知」思想的文學表達。

Key Words : 심학(Wang Yangming school of mind), 욕망(desire), 천리(heavenly principles), 주체성(subjectivity), 심성수련(mind-training)

www.kci.go.kr